

Style 1 조선일보

APRIL 2023
vol.251



CLASH
DE
Cartier





클래식

7337

브레게 *Classique* 컬렉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예술적 가치를
선사합니다.

Make History with us.


Breguet
Depuis 1775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The spirit to preserve.

70th
Fifty Fathoms
70th anniversary



"Creation"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2021
Grand Title winner
© Laurent Ballesta

A Fifty Fathoms is for eternity.

Launched in 1953, the Fifty Fathoms is the first modern diver's watch. Created by a diver and chosen by pioneers, it played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cuba diving. It is the catalyst of our commitment to ocean conservation.



RAISE AWARENESS,
TRANSMIT OUR PASSION,
HELP PROTECT THE OCEAN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I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블랑팡 직영부티크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02-3479-1833) ·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02-310-5295)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대전신세계 ART&SCIENCE 1층 지노 (042-607-8145)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16



24



12

- 11 **CLASSIC CHIC** 하나쯤은 꼭 가지고 싶은 클래식한 도시 남자 취향의 위치 선택션.
- 13 **FINGER CROWN** 클래식하고 중후한 룩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줄 남성링 컬렉션.
- 14 **역사를 수놓은 현대미술 컬렉터의 빈세기 여정** 취향대로 즐기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수집을 계속한다고 해서 컬렉터가 되는 건 아니다. 출중한 안목과 지속적인 연구, 유연하고도 명료한 수집 철학을 지니고만 한다. 현재 서울(송은)과 홍콩(HK)의 현대미술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소장품 전시가 동시에 열릴 만큼 '성공적인 컬렉터' 인생을 꾸리고 있는 율리 지그네(Sigg)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수호자이자 기록자나 다름없는 외길 컬렉터 여정과 철학을 들어봤다.
- 16 **문화 예술이 홍콩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들** 현대미술의 여파로 유난히 꿈꾸어 왔던 도시들이 있다. 여러 방면에서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손꼽히는 홍콩 역시 그러했다. 율법 홍콩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자 '초현실적이라는 반응마저 나왔다. 하나 이 비자본한 도시가 그저 버티고만 있을 리는 없다.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찾은 홍콩의 봄에서는 은근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다.
- 18 **BRING YOUR BODY TO PRESENCE** 플라비야게 미국인 작가 도나 후안카(Donna Huanca)는 느리고 명상적인 움직임이 주가 되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페인팅, 설치, 조각 등의 장르를 아우르는 고유의 시간언어를 선보인다. 여성주의적 제스처를 넘어 감각과 기억으로 이뤄진 인간의 몸 자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후안카의 작업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 19 **EXHIBITION IN FOCUS** 일상에서 비롯된 소재를 도구로 삼아 인간의 현실과 정체성을 공상해보는 회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 2선을 소개한다. 저유법 시리즈로 세계 무대에서 차곡차곡 작가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는 바버라 김(국제갤러리 부산점), 그리고 요즘 미술계에서 부쩍 관심을 받고 있는 테일러 화이트(지갈라리의 개인전이다).
- 20 **LEGENDARY OF TWEED** 2020년 사별 후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디렉터 파트리스 레귀에(Patrice Leguereau)는 사별 스타일의 필수 요소인 트위드 재질의 독창성에 영감을 받아, 트위드를 재현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며 사별 하이 주얼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 22 **SHOW YOUR BACK** 무심한 듯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남성 백팩 컬렉션.
- 23 **CLASSY MOVE** 룩에는 워킹 플레이스나 일상, 여행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성의 발끝을 완성해주는 훌륭한 조력자다.
- 24 **SPRING SPIRIT** 봄을 맞는 완벽한 자세. 2023년을 시작하는 남자의 뉴 스타일, 뉴욕.
- 32 **FEEL THE SPRING** 봄을 알리는 경쾌한 컬러감, 위트를 더하는 프린팅과 디테일, 그리고 소재의 폭넓은 변주까지. 스포링 맨이우터 & 백 컬렉션.
- 33 **PERFECT SOLUTION** 인티에이징 기능을 지칭하는 크림, 데일리 로션, 그리고 촉촉한 입술을 위한 립밤까지, 그루밍 베스트 아이템만 모았다.
- 34 **EDITOR'S PICK** 투명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와 봄 컬러로 물든 4월의 뷰티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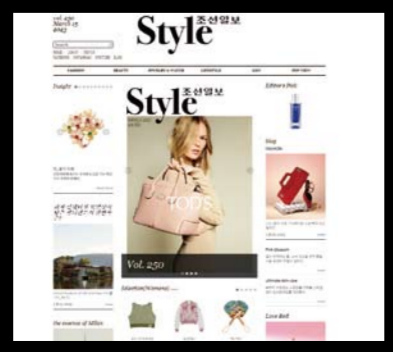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51 April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상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사비 분해·재판 리은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TOD'S KOREA INC. 02-3448-8201



TODS.COM



LOVELY SCENTS

패션 하우스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뉴 퍼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라모 브로ایت 레디오드 투왈렛 상큼한 시트러스와 로즈게라의 아로마 향이
 아우라처럼 부드러운 자연의 향을 풍긴다. 100ml 13만8천원. 문의 02-3447-9624
미우아 플레르 드 레오드 퍼퓸 플로럴 계열의 향과 달달한 망고 향이 조화를 이루는 롱 노트로 시계와 코코넛 향으로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50ml 14만2천원. 문의 080-850-0708 **클로에 로즈 나뭇잎 인텐스** 신선한 장미 에센스와
 부드러운 샴 누 향이 어우러진 우디 계열의 퍼퓸 50ml 18만1천원.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신정민**



TRONG IMPRESSION

까르띠에의 정신과 감성을 백으로 그대로 옮겨 담은 팬더 C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하이 주얼리 조각가의 긴밀한 협업으로 탄생한 이 팬더 백은 디자인에 까르띠에 아틀리에 주얼리 노하우를 활용했으며, 특별한 가죽을 사용해 백의 고귀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특히 팬더의 머리를 백금 형태로 재해석한 부분이 매력 포인트다. 유연한 실루엣과 여성스러운 정제미가 돋보이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은 스몰과 미니,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었으며 블랙·채리 레드·그린·페일 핑크 컬러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문의 1877-4326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여왕의 시간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 여왕이었던 카롤린 무라(Caroline Murat)를 위해 브레게에서 직접 제작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에 새로운 타임피스가 추가되었다. 바로 블랙과 루비 버전이 이은 핑크 컬러 워치인 레인드 네이플 라이트 핑크 8818이다. 로즈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플랜지에 1백1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으며, 그랑 피 에 나플 기법으로 제작한 핑크 컬러 다이얼과 핑크 스톰이 특별한 무드를 완성한다. 문의 02-3467-8335



GREEN EFFECT

강렬한 컬러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그린 컬러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포엠티도 누도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와 화이트 골드 총 7.3캐럿의 프라세오오라이트와 말라카이트를 세팅하고 밴드 양쪽을 총 0.9캐럿, 38개의 차보라이트로 장식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컬러 링**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불꽃망 남치는 밴드 중앙에 말라카이트를 세팅하고 양쪽에 칼렉션의 상징인 골드 비즈 사이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링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블라기 다바스 드림 펜던트 네크리스** 로즈 골드 소재의 다바스 드림 모티브에 말라카이트를 세팅해 그린 컬러가 돋보이며, 그 주위에 다이아몬드를 패세 세팅해 완성한 네크리스 9백70만원. 문의 02-2056-0170 **부시론 세팅 보헤미안 말라카이트 향밴드 L 링** 관능적인 밴에서 모티브를 얻은 18K 옐로 골드 비즈 밴드가 11.45캐럿의 말라카이트를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디자인의 불꽃망 있는 링 1천만원. 문의 02-3213-2246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신정민**

오빠 재용@design(noc)



서울 남산의 문화 예술 명소로 자리 잡은 피크닉(piknic)의 새 전시는 자신만의 사진과 감성으로 명사들의 사적 공간을 촬영해온 프랑수아 할라르(François Halard)의 개인전이다. 프랑수아 출신으로 유명 집사와 카마어를 함께하며 사진으로 성공했지만 그와 별개로 자신의 실과 작업에 영향을 끼친 예술가와 작가, 수집가의 개인적 공간을 꾸준히 렌즈에 담아왔다. 21세에 촬영한 이브 생 로랑의 파리 주택을 필두로 텍사스 마페(Marfa)라는 생소한 지명을 세계에 알린 도널드 저드 기념관, 스타 뮤지션 레니 크리버의 복잡한 정체성이 묻어 있는 피리 아파트, 아일론 그레이의 독보적인 건축 유산인 남프랑스 별장, 그리고 작가 스스로에게 휴식과 영감의 장소가 되어주는 프랑수아 남부 아틀리에의 자택 등 지난 40여년간 공간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기록해왔다. 루이 비통의 여행 사진집 시리즈 패션 아이(Fashion Eye) (그리스) 편을 위시해 10여 권의 다채로운 단행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자택에서 격면해야 했던 56일간을 기록한 사진집 '플라로이드'로 담은 《아틀리에의 56일》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프랑수아 할라르 사진전: Visite Privée》에서는 2백여 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은밀한 방문의 기억들



봄의 컬러

클레르보 뷰티에서 세 가지 파상의 새로운 리퀴드 립 컬렉션을 출시한다. 매트 립스틱은 벨벳 느낌의 텍스처감을 선사하고, 시인 립스틱은 입술에 광택을 주며, 스킨은 반짝이는 광채감을 더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킨케어의 크림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리치 크림 포뮬러로 입술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며, 아름다운 컬러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벨벳 텍스처를 선사하는 크림 루즈 매트는 워밍크림처럼 입술에 착감듯 부드럽게 연출되어 아름다운 립 메이킹업을 돕는다. 8ml 6만원대. 문의 080-564-7700

Like a BALLERINA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에서 2023 봄여름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스타일의 버블 발레리나(Bubble Ballerina) 슈즈를 선보인다. 맥시한 사이즈의 패들 밑창과 대조적인 컬러풀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 슈즈는 토즈의 상징적인 맥시 고미니 패들을 활용, 전통적인 고미니 디자인에 모던함을 더한 하이코닉한 감성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무광 레더 소재와 광택감이 돋보이는 새틴 소재, 두 종류로 선보이며, 편안한 착용감으로 율동과 여름 즐겨 찾는 슈즈가 될 것. 문의 02-3438-6008



INTERNAL SYMBOL

2023 봄여름 레디투웨어 컬렉션에서 특별한 액세서리들을 공개했다. 그중 사철의 영원한 상징적 숫자인 5와 향수 N5 모양을 본뜬 귀여운 이어링 두 가지를 소개한다. 골드 메탈에 레더로 완성한 제품으로 소재의 독특한 느낌을 담았으며, 사철만의 상징적인 모양을 이어링으로 재해석해 브랜드 감성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심플한 룩에 은은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추천한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SIMPLY ELEGANT

타미에서 한때적인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컬렉션인 타미 1921(Tamy 1921)을 출시하는 스시, 1940년대 타미 아키텍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유선형의 디자인, 매끄러운 라인을 통해 모던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무엇보다 이번 컬렉션의 핵심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름다움을 주는 스시, 메탈 컬러와 핑크는 정제미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다이아몬드 주얼리 디자인 또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해 매달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8230-8820



DOUBLE TOUCH

다들 스탠드업 브레이슬릿처럼 연출하기 좋은 워치 3.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워치 케이트 코드 상단 코드** 베젤은 물론 다이얼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한 그레이 컬러 무광 옐리미터 스킨 소재의 롱 스트랩 워치 1천3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소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아이코닉** 자름 26mm의 크리стал 사피어 글라스 케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무한 다이아몬드가 매력적인 타블렛 워치 1천5백22만원. 문의 02-6905-3390 **오메가 드 빌 마니 트라퍼** 자름 26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베젤의 다이아몬드 세팅이 우아함을 부여하며, 레드 플로럴 패턴의 다블 패브릭 스트랩이 매력적인 워치 6백30만원. 문의 02-6905-330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민**



스포츠한 무드를 입은 캔버스 소재의 리브 고시(Rive Gauche) 숄더백 가격 미정 생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유니크한 컬러 매칭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에버리스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부드러운 카보 스킨 소재를 사용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데스티니 레더 보이 1천만원에 팔린다.

퀼트 패턴과 패카가 귀여운 느낌을 주는 나일론 소재의 사우스웨스턴 퀼트 버킷 가격 미정 폴로 로렌.



타이푼 소재의 43mm 케이스에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 파우워트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 X 할™ 레이싱 워치 에디션 1천3백40만원 IWC.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는 인성적인 물감 스텔라노 05 가격 미정 셀란느 올모.



다이나믹한 디자인과 디테일한 패턴을 자랑하는 크로스 가격 미정 데이비드 클라크.

for him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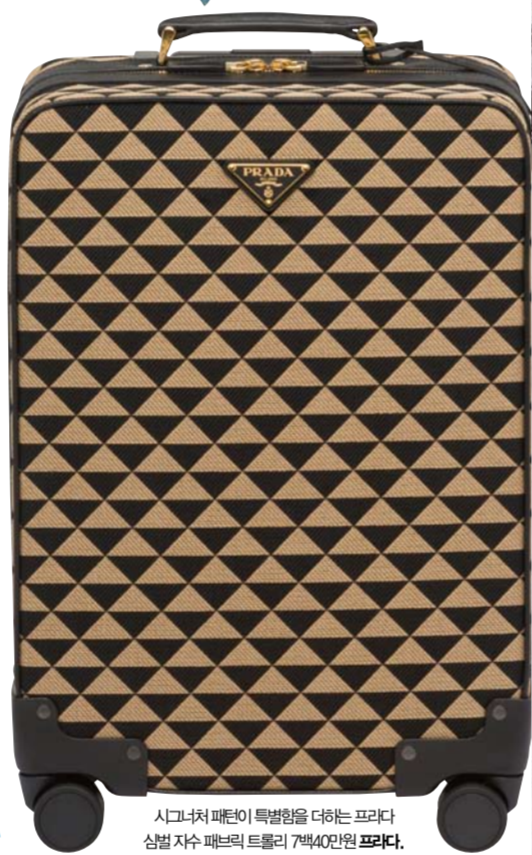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도 좋다. 스타일리시한 남성의 주말 여행을 위한 위크엔드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티프와 단정하지만 감각적인 컬러감이 잘 어우러진 카보 스킨 보르그 5 1백19만원 페라리모.



주요 컬러인 카보 스킨과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페라리모 가격 미정 페라리모.



시그니처 패턴이 특별함을 더하는 프라다 샵셀 자수 패브릭 트롤리 7백40만원 프라다.



- 제나 02-518-0285
- 루이 비통 02-3432-1854
- 생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6105-2228
- 발루티 02-547-1895
- 폴로 랠프 로렌 02-6004-0220
- IWC 1877-4315
- 셀란느 올모 1577-8841
- 다이나니 02-515-1924
- 페라리모 02-3430-7854
- 에르메스 02-542-6622
- 프라다 02-6905-3780
- 펜디 02-544-1925
- 아이미 02-6956-8782
- 신드로 올모 02-6905-3914
- 프레드 070-4732-0479

대담한 패턴이 강렬한 무드를 선사하는 플라워비코스 셔츠 34만원 신드로 올모.



시원한 느낌을 주는 갈라강의 바베이 크로아를 이루는 포넨 레피에를 2백50만원 프라다.



파란색을 강조하는 240cm 길이의 레피에 크로스백 19만 원 루이 비통 샤넬 바카렐로 프라다.



클래식한 핏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데스티니 레더 보이 1천만원에 팔린다.

원형의 에버리스 선글라스

Classic Chic

하나쯤은 꼭 가지고 싶은 클래식한 도시남자 취향의 위지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라이틀링 프라미에르 B25 디틀라 42 브랜드 해리타지를 한층더욱 재해석해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선사한다. 지름 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풀링 버클을 장착한 다크 브라운 옐로가죽 스트랩으로 럭셔리한 느낌을 주어 요일, 날짜, 문패이즈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1천9백37만원. 문의 032-654-5454 **브라이틀링 글락시 7147** 올드라-신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지름 40mm의 직경한 시아즈와 클래식하고 심플한 구성의 디자인이 드레스 워치로 제2이다. 다이얼은 블루 드 파페(Cou de Paris) 스텔라 패턴으로 장식하고, 5시 방향의 스틸 시어프를 새겨 넣은 다이얼은 크로스 워브 패턴으로 장식했다. 지름 18K 로즈 골드 소재 케이스로 우아하게 놓치지 않았다. 3천만 원에, 문의 02-6905-3571 **발루티 발루티 컴플리트 2212** 지름 40mm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브랜드의 상징인 독특한 문패이즈가 포인트를 주어 개성을 더해준다. 월, 일, 요일을 모두 표시하는 컴플리트 캘린더를 적용했으며, 시큐어 무브먼트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Cal. 6654로 작동해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캘린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3천5백만원에, 문의 02-3479-1833 **피아제 알티미라노**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워치로 지름 38mm의 극도로 얇은 올드라-신 케이스를 장 취향 소비자들에게 자유롭게 착용 가능하다. 더불어 뛰어난 다이얼에 가늘고 긴 핸즈, 최상급 배터리를 이어나가며, 발루티 심플 없이도 상징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2천3백60만원. 문의 1668-1874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브랜드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꼽혀온 직경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슬림한 배젤, 간결한 디자인의 다이얼로 누구에게나, 어떤 때나 잘 어울린다. 오묘한 느낌을 선사하는 블루 다이얼에는 아틀라에 이라비아 숫자와 날렵한 나뭇잎 모양의 로프 도금 핸즈를 매치해 세련미를 차 이었다. 자체 제작 89355 원버로 구동한다. 1천1백30만원. 문의 1670-7363 **바카렐로 콘스탄틴 페트리 모니 문패이즈 & 레트로그래드 데이티** 브랜드의 레트로그래드 달고 있는 대표 워치. 지름 42.5mm 18K N 핑크 골드 소재로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케이스에 알티메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드레스 워치의 우아함을 표현했다. 심플한 구성에 레트로그래드 날짜 표시와 문패이즈 기능을 더해 판타지까지 추가했다. 6천9백만원. 문의 1877-4306 **오메가 더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직경 40mm의 스틸-세라믹 골드 케이스에 아라비아 숫자 이원 미쿠와 심플한 핸즈로 드레스 워치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다이얼과 스트랩의 요란한 그래픽 컬러 뒤에 개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오메가 8800 칼리버로 구동한다. 9백30만원.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셀란느**

원형의 에버리스 선글라스



창랑한 느낌이 물씬 나는 총 0.57카트의 스퀘어 컷사파이어 10개와 총 0.19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개를 세팅한 주드 리앙 펜던트 9백만원대 **쇼메**.

아이코닉한 패턴 디자인이 돋보이는 트라코프 베이스를 겸 75만원 **셀린느 바이 에디 슬리먼**.

마이크로 미니 사이즈로 백 참이나 액세서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파코 파카뉴 백 1백만원대 **팬디**.

고급스러운 렌즈 컬러와 프레임의 조화가 특징인 카브 오버사이즈 바티올라이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경쾌한 칼라감으로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패브릭 소재의 고매진 슬링백 발라라나 98만원 **로저 비비에**.

총 9.17카트의 그린 컬러 다이아몬드 총 0.32카트의 2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골드 소재의 포켓워치 1백만원대 **파피에**.



라벨리안 칼라와 디자인이 돋보이는 저지 소재의 스텝 슈트 60만원대 **에르메스**.

화려한 패자가 눈길을 끄는 LVXYK 페이스 패치 데님 재킷 가격 미정 **루이 비통**.

for her Selection

따뜻해진 햇살과 술술 불어오는 봄바람, 주말에 어울리는 멋스러우면서도 편안한 트래블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2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만나 심플한 맛을 전하는 타파니 1837 메카닉스 워치 가격 미정 **타파니**.

부드러운 패턴과 소재를 100%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패턴을 연출한 1백만원대 **팬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아담하나 쉽게 매칭할 수 있는 매트릭스 테크닉 브레이슬릿 29만5천원 **스와르브스키**.



시그니처 D 모양의 프론트 포켓과 우아한 골드 메탈을 장식한 레드 모모움 소프트 7족 소재의 핸드백이 가격 미정 **팬디**.

인더와 담요 그리고 피우치까지, 여행자를 위한 필수 아이템을 담은 트래블 세트 가격 미정 **사벨**.



은은한 핑크 컬러로 여성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자아나 1백9만원 **이자벨 마랑 에뛰알**.



별다른 장식 없이 감성 스타일의 에르메스 28호는 A&E DOR 열매 향 가격 미정 **타파니**.

- 쇼메 02-3442-3359
- 사벨 080-805-9628
- 셀린느 02-6905-3709
- 다들 02-3280-0104
- 팬디 02-544-1925
- 루이 비통 02-3432-1854
- 셀린느 바이 에디 슬리먼 1577-8841
-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파피에 1688-1874
- 이자벨 마랑 에뛰알 02-516-3737
- 스와르브스키 02-1522-9065
- 에르메스 02-542-6622
- 베리 02-3277-0230
- 타파니 02-6250-8620

finger Crown

클래식하고 중후한 룩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줄 남성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니 벨 에프크 릴** 화이트 골드 소재의 건축학적 디자인으로 상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웨어러블하게 착용 가능하다. 가운데 들어가는 릴 모티브로 브랜트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카르띠에 LOVE 볼륨감 있는 18K 골드 밴드 남성들이 착용하기 좋은 사이즈를 갖았으며, 총 0.22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개를 세팅해 포인트와 개성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블가리 비자워원 뉴 웨이브 3밴드 브랜드 대표 아이코닉한 베스트셀러 라인인 링으로 블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다.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9밴드 볼륨감을 살렸다. 8백50만원. 문의 02-2056-0170

그라피 로렌스 그라피 시그니처 파베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독특한 커널 밴드 디자인으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 남성에게도 잘 어울리는 링.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4백25만원. 문의 02-2256-6810

타파니 타파니 T 브랜드 아이코닉한 비영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T 모티브를 워터 건축적으로 표현한 링으로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남성적인 매력을 배가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부세렌 콰트로 더블 화이트 다이아몬드 라지 프랑스로 '4'를 의미하는 콰트르(Quatre)는 네 가지 다른 스타일과 소재의 밴드를 워터 보행의 두창적인 감성을 부여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화이트 골드와 화이트 세라미, 그리고 25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를 매치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213-2246

프래드 포스텐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포스텐 모티브를 더욱 볼륨감 있게 표현한 라지 사이즈 링. 화이트 골드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9개를 파베 세팅한 포스텐 모티브가 돋보인다. 8백51만원. 문의 070-4732-0479

포엠티에 이코닉 볼륨감과 곡선을 중시하는 브랜드 시그니처 컬렉션의 링으로 볼륨감이 풍부한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별, 삼각형 등 다양한 모양의 홈을 더하고 총 0.77카트, 2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개성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에디터 상영민**

Interview with_ 울리 지그(Uli Sigg)

‘역사’를 수집한 현대미술 컬렉터의 반세기 여정

막대한 가치를 품은 소장품 기부로 '이건희 컬렉션'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미술품 컬렉터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브랜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력한 컬렉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이건희'라는 이름 석지만 붙으면 안 그래도 인기가 부쩍 치솟은 문화 예술 플랫폼인 미술관 앞에 몇 겹 파리를 틀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명한 아트 딜러이자 컬렉터인 아담 린데만은 미술품 수집을 가리켜 "병, 지독한 물질주의, 집착, 혹은 열정이라고 불려도 좋다"고 했다. 분명한 건 단순한 투자로만 대하지 않는 수집광들에게 컬렉팅은 도무지 멈출 수 없는 행위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취향대로 즐기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수집을 계속한다고 해서 컬렉터가 되는 건 아니다. 출중한 안목과 지속적인 연구, 유연하고도 명료한 수집 철학을 지녀야만 한다. 현재 서울(송은)과 홍콩(M+)의 현대미술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소장품 전시가 동시에 열릴 만큼 '성공적인' 컬렉터 인생을 꾸리고 있는 울리 지그(Uli Sigg)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수호자'이자 기록자나 다름없는 '외길' 컬렉팅 여정과 철학을 들어봤다.



역사 속에는 예술가들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키는 데 독특한 몫을 하는 건 물론, 예술사의 흐름을 함께하거나 심지어 바꿀 수도 할 정도로 위대한 컬렉터들이 있다.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잭슨 폴록을 키워내는 등 미국 현대미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페기 구겐하임도 있고, 앙리 마티스나 파블로 피카소 같은 재능에 아낌없이 투자했던 세르케이 시추진 같은 인물도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명소로 꼽히는 게티 뮤지엄 설립자 존 폴 게티는 아트 컬렉팅을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희열과 충족감 넘치는 것이라고 예찬하면서 미술품 수집이 단순히 취미가 아닌 '소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단한 부를 소유했던 소위 '갑부'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사실 슈퍼 리치 게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짠돌이'였지만 미술에는 관대한 편이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울리 지그(Uli Sigg)를 보고 '성공적인 컬렉터'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다. 스위스 출신인 그는 거부 집안에서 태어나 마음껏 부를 휘두르며 예술을 접한 게 아니라 평범한 샐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컬렉터의 길로 빠져들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유수 미술관으로부터 그

의 이름을 내건 소장품 전시를 하자는 러브콜을 받으면서 스위스 루체른주에 있는 아름다운 섬(Mauensee)에 자리한 고성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 못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도 하다. '컬렉터=직업'이라 여겨져도 무리 없을 명성과 인맥, 재력까지 골고루 갖춘 드문 사례 아닌가.

#중국의현대미술사와 함께한 지그 컬렉션

그러나 '성공'의 화려한 단면만 부각되기엔 어렵다. 예술적 토양이 풍부한 스위스 출신이긴 하지만 울리 지그는 현대미술을 접하거나 수집을 하는 '아트 애호가'와는 거리가 먼 성장기를 보냈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자리한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송은에서 지난 3월 10일 개막한 전시 <울리 지그 중국 현대미술 컬렉션(SIGG: Chinese Contemporary Art from the Sigg Collection)>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그는 중국 발명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에는 "가구에는 관심이 꽤 있었지만 미술품을 수집한 적은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지인의 파산으로 우연히 스위스 화가의 망가진(구멍 뚫린) 그림을 산 게 전부였던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미술 자체에는 흥미가 있었다고 해도 컬렉



1 송은문화재단의 올해 첫 전시 (SIGG: Chinese Contemporary Art from the Sigg Collection)의 주인공인 스위스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가 송은 전시장 1층의 카피된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소장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영 작품은 주자양(周子揚) 작가의 영상 작품 <The Declaration of the Blind(2015)>, 27분 12초. 2 지난 3월 초 자신의 소장품 전시를 보러 송은을 찾은 울리 지그. 3 송은 입구에 설치된 다자택 스크린. 이번 전시는 송은문화재단이 2021년 신사옥으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마련한 해외 컬렉션이다. 4 송은 전시장 1층에 아웨이웨이웨이(Ai Weiwei)의 작품 <Safety Jackets Zipped the Other Way(2020)>와 정권관(Zang Kunlun) 작품 <Upright(2018)>가 놓여 있다. 5 송은 2층 <갤러리>에 전시된 울리 지그의 초상화 by 지옌밴디(Zhao Bandi). 6 송은 2층 주 전시장에서 선보인 한맹원(韓孟源) 작가의 설치 작품 <The Pavilion of Three Mirrors(2021)>. Bespoke metal sheets and metal arches Dimensions variable. 7 송은 지하 2층 전시장의 울리 지그 컬렉션 전시에서 선보인 허상위(何翔宇) 작가의 <The Death of Marat(2011)>. Fiberglass, silica gel, 36 x 183 x 85cm. 8 홍콩 시우롱 문화 지구(WKCDD)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현대미술관 M+ 건물 외관. 이 미술관에는 울리 지그가 기증한 중국 현대미술 작품이 M+ Sigg Collection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다. 송은과 M+ 둘 다 스위스의 체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HdM이 맡아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Photo: Kevin Mak. © Kevin Mak. Courtesy of Herzog & de Meuron. 9 M+ 지그 컬렉션의 한 전시실 풍경(전시실의 회화 작품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Installation view of M+ Sigg Collection: From Revolution to Globalisation in Sigg Galleries. Photo: Lok Cheng. Courtesy of M+, Hong Kong. 10 2021년 봄 베른시립미술관(Kunst Museum Bern)에서 열린 지그의 남방권 미술 소장품 전시 <Border Crossings>에서 선보인 이수경(李秀景) 작가의 작품 <Translated Vases — The Moon 3(2007)>. 11 <Border Crossings> 전시 모습. 이수경 작가를 비롯해 전소정, 함경아, 김근배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한 작가들의 작업과 함께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수경 작가의 카피에서 의미 깊은 나뭇잎 전사의 연결점 역할도 했다. photo by Rolf Siegenhaker. 아미지 제로 울리 지그. 12 스위스 루체른주의 마우엔섬(Mauensee)섬에 있는 울리 지그의 자택. 그는 아트 바젤과 원조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 in Basel) 기간 다른 컬렉터나 관계자를 초청해 반세기 가까이 온 연구와 수집 여정 속에 쌓아올린 자신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다. photo by Armin Grass. * 1, 3-5, 8 photo by Sy Ko. * 2, 6 ©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 Photo: CJY ART STUDIO



터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말이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경제·경영 분야 기자(business journalist)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신들러 그룹에서 일을 하게 됐고 30대에 접어든 1970년대 후반 베이징에 파견됐다. 당시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던 덩샤오핑의 시대였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고, 신들러 그룹은 승강기(elevator) 만드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다. 느닷없이 산업의 현대화를 이끄는 선두 대열에 속한 외국 비즈니스맨이 된 울리 지그는 중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호기심과 학구열이 있는 그로서는 이 거대한 나라에 대해 파편적인 정보만 쌓는 것이 마뜩찮았다. 그래서 동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일컬어지는 현대미술을 통한다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무턱대고 수집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현대미술을 한다고 할 만한 작가가 많지도 않았을뿐더러, 먼저 '공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평가를 쌓아가는 '축적자(accumulator)와 컬렉터(collector)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중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예술을 다룬 서적을 섭렵하며 '독학'해나갔고, 현지 예술가들도 알아갔다. 이렇듯 관망과 연구를 하던 중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발했고, 이는 인류의 오랜 역사의 전환을 낳은 문화적 자극에 역할을 했다.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도전에 나선 중국 예술가들을

보면서 울리 지그는 1990년부터 작품 수집에 전격 나섰다(이 시기에 회사도 그만뒀다). 당시 중국에는 갤러리나 딜러가 활동할 만한 예술 생태계가 부재했기에 주로 작가에게서 구매했다. 특이하게도 그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북한, 몽골, 주재 스위스 대사로 재직했는데, 덕분에 그는 북한의 미술품도 소장하게 됐다(심지어 평양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짓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고).

#M+ 기증 이후 '수집 인생 2막'을 즐긴다

울리 지그의 중국 현대미술 컬렉팅 여정에서 만난 작가는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는 유명한 반체제 작가 아이웨이웨이가 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지적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미술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칭찬을 북돋웠다고 그는 회상했다(명성 높은 시인 아이칭의 아들인 아이웨이웨이는 영화를 전공했고 미국에서 행위 예술을 하기도 했지만 부친의 병환으로 1993년 베이징으로 돌아온 직후에는 주로 예술가들을 돕고 책을 출판했다). 그런데 주지할 만한 사실은 울리 지그의 수집 목적은 처음부터 "기증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원래는 국가 단위의 미술 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빠져 있던 퍼즐을 개인인 그가 맡아 채워 넣었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수집 여정이었다는 얘기다. "저는 중국 현대미술의 (발전) 시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컬렉션을 구축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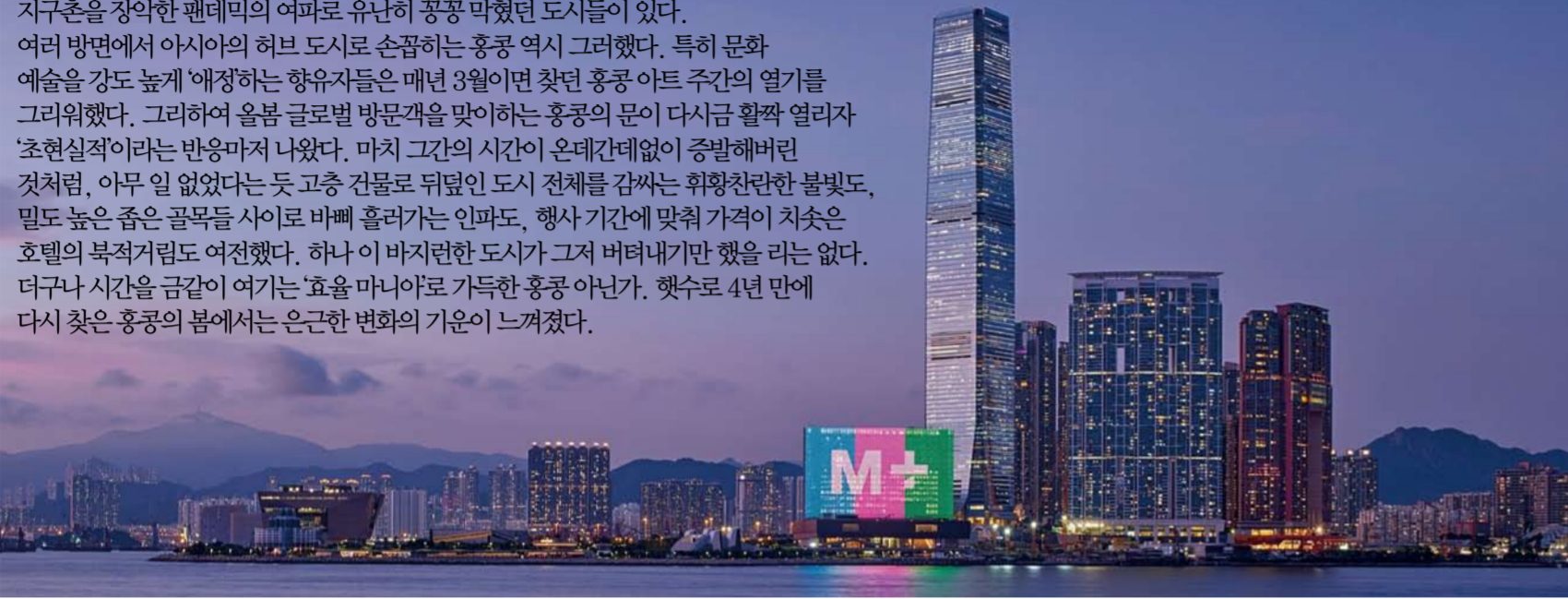
취향을 반영하기보다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포괄하는 수집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중화권에 거주하는 중국 작가들을 위한 중국현대미술상(CCAA)까지 제정했다. 그리고 2010년대 중국에서 미술관 설립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 큐레이터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주겠다는 홍콩의 M+에 자신의 컬렉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천4백63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마침 그와 같은 스위스 출신의 걸출한 '스타티켓트' 듀오가 이끄는 HdM이 설계를 맡은 M+의 중요한 자산이 된 그의 소장품은 'M+ 지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전시되고 있다(송은 신사옥 역시 HdM이 설계했다). 그동안 중국 현대미술의 가치도 고공 행진했기에 울리 지그의 기증 작품 가치가 1억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있다(M+에서 추가로 47점을 구매했기에 그도 거금을 받았다고는 한다). 송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홍콩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된다"고는 했지만 열흘쯤 뒤에 홍콩 아트 주간에 열린 M+ 행사에서 만나니 꽤 고무돼 보였다. 그의 이름을 딴 예술상 '지그 프라이즈' 행사가 열린 자리였으니 컬렉터로서의 보람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겠는가. M+의 방향성은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지만 쟁쟁스, 팽예준, 장사오광 같은 중국 현대미술 스타 작가들이 포함된 그의 소장품을 전시한 공간에는 당초 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아이웨이웨이의 두 작품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 한 나라의 소중한 문화 예술 자산에 대한 연구와 기록, 수집을 아우르는 반세기에 걸친 소신 있는 여정은 '통 큰' 기증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컬렉팅 인생의 2막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백과사전식 수집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했다"는 새로운 컬렉션(600점 이상)의 일부가 현재 송은에서 전시되고 있기도 하다(오는 5월 20일까지). 또 그는 북한 작가들뿐 아니라 이수경, 전소정 등 우리나라 현대미술가의 작품도 꾸준히 모아왔는데, 2021년 봄 베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에서 아마 세상 어떤 수집가도 소장하고 있지 않을 독특한 구성의 컬렉션이 공개되기도 했다. 추후 한국에서도 지그 컬렉션 여정의 2막을 더 폭넓게 접할 기회가 있기를, 글 **고성현**



Hong Kong Art Week 2023

문화 예술이 홍콩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들

지구촌을 장악한 팬데믹의 여파로 유난히 쾅쾅 막혔던 도시들이 있다. 여러 방면에서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손꼽히는 홍콩 역시 그러했다. 특히 문화 예술을 강도 높게 애정하는 향유자들은 매년 3월이면 찾던 홍콩 아트 주간을 그리워했다. 그리하여 올봄 글로벌 방문객을 맞이하는 홍콩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자 '초현실적'이라는 반응마저 나왔다. 마치 그간의 시간이 온데간데없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층 건물로 뒤덮인 도시 전체를 감싸는 휘황찬란한 불빛도, 밀도 높은 좁은 골목들 사이로 바베 흘러가는 인파도, 행사 기간에 맞춰 가격이 치솟은 호텔의 북적거림도 여전했다. 하나 이 바지런한 도시가 그저 버텨내기만 했을 리는 없다. 더구나 시간을 금같이 여기는 '효율 마니아'로 가득한 홍콩 아닌가.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찾은 홍콩의 봄에서는 은근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로 일컬어지는 '도시'를 거론할 때면 자주 떠올리게 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다. 21세기는 도시화의 세기이자 문화의 세기라든지, 이 세기를 주도한다고 여겨지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축으로 문화가 꼽힌다든지, 그리하여 주요 도시들이 '크리에이티브 허브(Creative Hub)'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안타깝게도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만 승승장구하기 마련이라는 도시 기획 전문가 리처드 플로리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말이다.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에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을 두루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던 필자의 눈에 도시 문화 예술 주도권을 향한 각 도시의 경쟁 의지와 실천력이 흥미롭게 보였다. 정치적, 사회적 변동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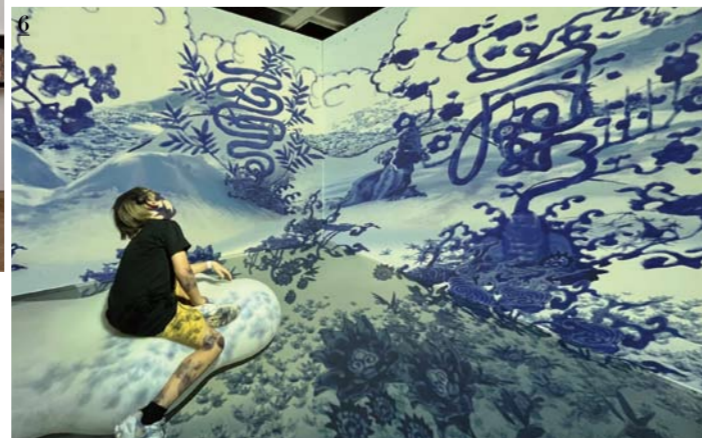
로 위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중 '홍콩'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온 도시다. 미술계에서는 세계 최고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의 홍콩 진출(2013년)로 다져온 다른 면모에도 주목하지만 사실 럭셔리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는 현대미술 생태계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는 경향이 다분하고, 도시 곳곳에 산재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마저 남다른 이 분주한 도시의 거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딴 세상' 이야기라고 여기는 정서가 더할 수밖에 없다.

홍콩을 움직인 '브랜드 페어'의 힘과 생태계의 진화

그렇지만 K-팝이나 K-드라마, 일본의 애니메이션, 건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문화 예술의 힘은 강하다. 홍콩도 이를 간과하지 않았고, 꾸준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데 매진해왔다. 정부 주도라고는 하지만 도시의 큰 변화는 집단적 열망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법이다. 여기에는 우선 아트 바젤 홍콩의 브랜드 파워가 한몫 단단히 했다. 2008년 아트 바젤 홍콩의 모태가 된 홍콩 아트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가 설립되면서 미술 시장을 둘러싼 기운이 커져갈 무렵 가고시안, 화이트 큐브, 리만버린, 페로탕 같은 '스타' 갤러리의 아시아 분점이 속속 입성했고, 2013년에는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스위스 MCH 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그야말로 판이 제대로 커졌다. 아트 페어는 때로 현대미술

장터의 수준을 넘어 문화 예술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곳곳은 물론 서구권 미술계 인사와 컬렉터가 홍콩을 찾았고, 이에 발맞춰 정부와 비영리 예술 기관, 갤러리가 모여들어 '아트 주간'이 열리게 됐다. 어떤 분야의 콘텐츠들 간에 입문을 유도하는 매개체는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필자에게는 바로 아트 바젤 홍콩이 '입구'였다. 그저 음식 찬국이나 금융 도시로 바라봤던 홍콩의 복잡다단한 '진짜배기' 매력을 아트 페어 취재를 계기로 조금씩 알게 됐고, 아직까지는 출구를 못 찾았다.

사실 아트 페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로 작정하고 작품을 살 게 아니라면 똑같은 행사는 몇 년 지나면 좀 식상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도시의 경계를 확장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트 주간에 각종 문화 기관이나 복합 시설에서 펼치는 행사와 새로운 공간을 접하면 직접거나 심심할 틈이 좀처럼 없다. 팬데믹 전을 기준으로 하자면 아트 특화 빌딩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H켄츠(하우저엔워스, 데이비드 즈워너 같은 유수 갤러리들이 들어가 있다), 중앙 경찰서, 빅



1 M+, Hong Kong Photo_Virgile Simon Bertrand © Virgile Simon Bertrand Courtesy of Herzog & de Meuron 2 M+ 포커스 갤러리(Focus Gallery)에 설치된 비둘(Beeple)의 작품 'HUMAN ONE'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3 2018년 5월 홍콩 센트럴 지구에 들어선 영소 타이퀀 센터 내에 있는 현대미술관 JC 컨템퍼러리, 스위스의 저명한 건축가 뒤요가 이끄는 헤이츠크 앤드 드 외렌(Heim & Orlan) 건축 설계 사무소의 작품이다. 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 Hong Kong Photo: Iwan Baan © Herzog & de Meuron. All rights reserved 4 타이퀀에서 진행 중인 LGBTQ 전시 'Spectrosynthesis II' 풍경. 5 홍콩 뮤지엄 오브 아트(HKMoA)가 수년만에 걸친 재건축을 마치고 2019년 대중에 다시 공개되었는데, 평양근대도 복작하는 광경을 관찰할 수 있다. 6 미술이 어찌가 설치된 HKMoA 전시장.



토리아 감옥 등 16개 옛 정부 건물을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복합 문화 단지로 재탄생시킨 장기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타이퀀(Tai Kwun) 센터 등이 좋은 예다. 공간의 매력은 세월이 흘러도 콘텐츠의 변화무쌍함을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 같은 흡수력이 있다. 올봄에 홍콩을 찾았을 때도 H켄츠 건물 앞에는 갤러리 오픈ing 행사나 파티에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긴 줄이 눈에 띄었고, 타이퀀에도 갤러리 오라오라의 신선 작가 전시, 명품 코즈메틱 브랜드 라프레리의 야외 전시, 장안의 화제인 LGBTQ 전시(Spectrosynthesis III) 등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며 본격적으로 해외 손님을 맞이들인 아트 바젤 홍콩 자체도 8만6천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지만 복합 빌딩(머시픽 플레이스, 타이쿠 플레이스, K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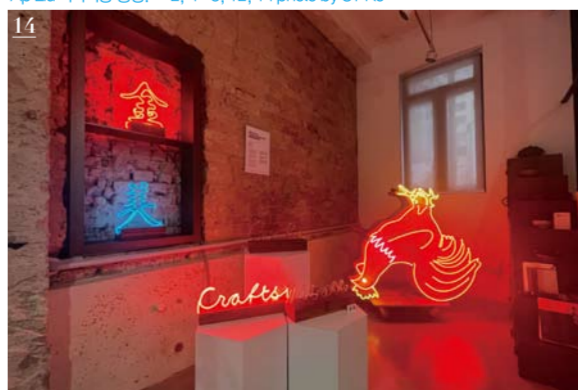


Musea 등)이나 공원 등 도시 곳곳에서 열린 각종 부대 행사도 발품을 유도했음은 물론이다.

드디어 거가재 M+의 존재감과 로컬 문화

그래도 올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 홍콩 최대 규모의 비주얼 아트 센터인 M+가 기나긴 공사 끝에 2021년 늦가을 드디어 자태를 드러냈는데, 바다를 건너는 방문객들 입장에선 이번이 이 근한 랜드마크와 첫 대면하는 기회여서다. 구룡반도 서쪽 매립지 위에 세운 시주룽 문화 지구(WKCD)에 들어서서 마치 도시 전체에 인사를 건네는 듯한 M+의 존재감을 당할 상대는 당분간 없는 듯 보인다. 전시 공간 규모만 17,000㎡(약 5천1백 평)에 이르는 M+는 테이트 모던을 비롯해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스위스 건축 스튜디오 HdM의 작품으로도 이미 유명세를 떨쳤지만 일단 개관하고 난 뒤에는 동서양이 만나서 허브 역할을 내세우는 글로벌 전시 콘텐츠로 발길을 이끌고 있다(현재는 일본의 스타 작가 구사마 야요이 전시가 한창 열리고 있으며, 이번 호에 인터뷰로 소개된 울리 지그(Uli Sigg)의 소

7 지난 3월 22일 홍콩 전향전 - 전시 섹션(KCEC)에서 4년 만에 물리적 장소에서 리모브 전향전 아트 바젤 홍콩 전(비엔날레 프로그램, 홍콩의 관광에서 본 아시아 미술 시장에 관한 영민 토론이 펼쳐졌다. 8 아트 바젤 홍콩의 디스커버리 부문에 전향전 작가의 Truly Madly Deeply 시리즈를 선보인 갤러리2의 부스. 9 대형 설치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의 첫 야외 설치 프로젝트(벤 브라운 파인 아트). 10, 11 홍콩 스와이어 그룹(Swire Properties)이 지원하는 (아번 록스(UrbanRocks) 전시가 타이쿠 플레이스(복합 비즈니스 빌딩)의 아티스트트리(ArtistTree)에서 열렸다. 프랑스 조각가 로랑에서 활동하는 폴로 부리외(Polo Bourrieu) 개관으로 이베리아 완성을 즐긴다. 고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눈에 띈다. Photo credit_Pak Chung 12 문화 예술과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 K11 Musea, 홍콩 아트 위크 기간에 맞춰 글로벌 미술계에서 영향력 큰 인사인 제프리 다이아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스트리트 아트 전시 (City As Studio)가 막을 올렸다. 13 K11 Musea의 전시에 선보인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Valentine' (1984). 연인과 자신의 합체한 모습을 그린 회화 작품이다. Acrylic on canvas, 72 x 56 inches. © Lisa Kalo, Courtesy of Paige Powell. Paige Powell is the sole owner of the painting 'Valentine' by artist Jean-Michel Basquiat. 14 공예 작품들을 지원하는 홍콩의 비영리 전시 공간이자 워크숍 플랫폼인 펠 크래프트 온 피의 내부 모습. 파직 장소를 공유하는 시간(작품)이 보인다. 15 각종 기념품을 견문(사도) 양과 캄캄(사도) 양과 드라하는 홍콩의 매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사진은 홍콩의 첫 번째 박물관 달콤편(Sham Shui Po)의 'Ap Liu 박물관' 풍경. ※ 2, 4~8, 12, 14 photo by SY Ko



장품 전시도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방문자가 거의 없던 시기에 오픈했기에 홍콩 시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홍콩 인구가 729만 명(2022년 기준) 정도로 추산되는데, 15개월에 걸쳐 무려 3백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M+를 다녀갔다는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또 시주룽 문화 지구 안에 같이 들어선 홍콩공공문화박물관도 뒤이어 문을 열었는데, 역시 예매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현지에서 만난 한 홍콩 지인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 없이 살던 홍콩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가진 건 뭘까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고, 찾아다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했다. 위대한 건축가이자 저술가이기도 했던 알도 로시는 도시민 삶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도시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혼혈아로서 여전히 중국에도 영국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한 정체성을 띠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스의 변화는 내부로부터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다. 아주 당연하게도, 다면적인 허브 도시로서 그들만의 도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일 터다. 글 **고성현**



Bring your Body to Presence

도나 후앙카 <BLISS POOL>展

볼리비아계 미국인 작가 도나 후앙카(Donna Huanca)는 느리고 명상적인 움직임이 추가 되는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페인팅, 설치, 조각 등의 장르를 아우르는 고유의 시각언어를 선보인다. 화려한 색채의 보디 페인팅이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의 주체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여성의 신체를 다뤄온 기존 미술사나 문화사에 반(反)한다. 하나 이러한 여성주의적 제스처를 넘어 감각과 기억으로 이뤄진 인간의 '몸' 자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후앙카의 작업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피부, 머리카락 등 자신을 감싸고 있는 신체의 감각으로 시간의 흔적을 더듬고, 삶과 존재의 순간과 영원이라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 다른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떠오르기도 한다. 도나 후앙카의 국내 첫 개인전 <블리스 풀(BLISS POOL)>은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에서 6월 8일까지 열린다.



도나 후앙카의 전시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신체적 추상화로 삼는 거대한 스케일의 몰라주 작업과도 같다. 한때 전시 준비를 위해 비워뒀을 공간이 작가의 '살아 있는 예술(living art)'이라 칭한 모델들의 퍼포먼스부터 입도적인 대형 페인팅, 신체의 형태를 모방한 조형물, 환과 시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으로 수놓아진다. 모든 작품은 과거 작업의 흔적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이전 전시의 순간을 담은 채 서로 연계되며 존재하는데, 후앙카의 작업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순환성은 그녀의 작업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에 대한 몰라주로 여겨지게 한다. 스페이스K 서울 개인전의 경우에도 전시장 양쪽에 각각 커다란 벽을 이루며 마주 보고 있는 대형 페인팅 연작은 지난 퍼포먼스를 기록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작가는 확대 인쇄한 모델의 신체 사진을 밑바탕 삼아 인료에 모래, 커피 같은 자연 재료를 섞어 만든 두꺼운 유포층을 바른단. 짙은 파란색이나 주황색, 다홍색의 색상 팔레트는 자연과 주변의 환경에서 영감받았다. 확장된 이미지는 형태를 잃는 대신 강렬한 색상에 덮여 고요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는 거대한 추상화로 재생산된다. 물감이 단단하게 굳은 캔버스 위에는 브러시를 대신 해 물감을 바르고 긁어낸 손 자국, 피부 표면의 질감, 채취, 탐 같은 몸의 흔적이 그대로 흡수되어 있다. 이미 휘발된 퍼포먼스가 페이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 흘러간 흔적을 붙잡아 그 존재를 영속하게 하는 후앙카의 예술적 실천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해볼 수 있듯 물이 내는 다양한 소리로 이뤄져 있다. 거대한 집중하다 보면 관객은 작가의 바람대로 '살아 있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추상적인 사공간에서 신체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이름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현재(現在)의 반영을 위해 후앙카는 전신을 펼칠 공간이 위치한 장소의 자연적 특징이나 공간의 크기, 형태, 색상, 빛 등 건축 요소를 작업에 섬세하게 녹여낸다. 전시장 가운데 놓인 타원형의 연못(Pool)도 스페이스K 서울의 건축물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호수(湖) 형태의 기복으로 둘러싸인 연못은 조각들의 반향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주무대로 기능한다. 유광의 매끈한 표면은 마치 연못의 수면에 풍경이 투영되듯 주변 환경과 대기, 관람객과 모델들의 모습을 비추며 물결임을 더해준다. 작가의 보디 페인팅과 장신구, 옷가지를 걸친 모델들은 거울 면으로 이뤄진 조각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어 가며 스스로를 배치하는, 느리고 긴조된 움직임을 선보인다. 스스로 정작하고 명상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주체인 이들의 느릿한 움직임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현재 시간의 흐름

1 서울 마곡동에 있는 스페이스K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나 후앙카(Donna Huanca) 개인전 <블리스 풀(BLISS POOL)> 전시 전경. 작가의 퍼포먼스가 전시 오픈 뒤 4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퍼포먼스는 몰라주된 모델들의 흔적과 존재의 에너지를 전시장에 계속 남아 있다. ©Onart Studio 2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대형 페인팅 작품은 지난 퍼포먼스 작업을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물감, 자연 재료 등을 덧칠해 만들었다. 'BLISS POOL #2(2023)', Oil sand on digital print on canvas, 228 x 168 x 130cm. 스페이스K 서울 제공. 3 도나 후앙카 개인전 <블리스 풀(BLISS POOL)> 전시 모습. ©Onart Studio 4 <블리스 풀(BLISS POOL)> 전시장을 배경으로 시는 도나 후앙카의 모습. ©Elsa Kostic

'존재를 경험하는 사공간'으로의 초대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돋보이는 후앙카의 전시장 풍경은 언뜻 인스타그램(Instagrammable)하다는 표현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사실 존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그녀의 작업은 오히려 관객을 살아 있는 현실로 불러들이는 인터-스크린적 플랫폼에 기반다. 후앙카는 자신의 명상적 의식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 미디어와 인터랙션을 통한 감각과는 차별되는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할기와 소리라는 장치를 더한다. 소리와 향이인 감각의 기억에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대뇌에게 어떠한 향을 맡거나 소리를 들을 때 특정한 시간으로 소환되는 경험이 낯설지 않도 않다. 보다 강렬한 관심을 위해 후앙카는 전시마다 새로운 향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팔로 스토포박제에 머리카락을 태워 제조한 향을 첨가했다. 전시장들을 조용히 걷는 시운트는 전시명인 BLISS POOL에서 유추



바다와 나, 자연과 인류

#마이런 김, <Marine Layer>展

자마다 색상이 다른 단색조의 사각형이 빼곡하게 캔버스를 메운 작품 '제유법(Synecdoche)' 연작은 마이런 김(Byron Kim, 1961년생의 대표작으로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인상적으로 첫선을 보였다. 언뜻 모노크롬 회화처럼 보이지만 한 인물의 고유한 피부색을 재현했다는 각각의 화면이 모여 다 인종 사회를 표현한다. 재미 고프로서 미국에서 여러 인종과 섞여 지낸 작가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작가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인 제유법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편화된 신체의 미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개인이 각각 중심이 되어 시화가 돌아간다는 관계의 미학을 조어한다. 형식적 독창성과 개념적 정밀성의 균형이 배어난 추상 작가는 평을 얻고 있는 마이런 김은 구상적인 소재를 고집하며 우리가 맺는 관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5년 전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하늘을 소재로 선보인 <Sky>전에서도 그랬고, 바다를 매개체로 택한 신작을 들고 나온 이번 전시 <Marine Layer>에서도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다분히 일상적인 장면을 포착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우

라네 삶의 관계성, 그리고 현실을 둘러싼 이슈를 들여다본다. 전시명 'Marine Layer'는 바다에 대한 상상을 수중, 수면, 바다 위(하늘)로 나눠 기록한 데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내놓은 신작의 시리즈명인 'B.O.O'는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리투스>, 허먼 멜빌의 <모비 딕>, 호머의 <오디세우스>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Berton, Queequeg, Odysseus)을 각각 딴 것이라고 한다. 팬데믹 여파로 미국 플로리다주 오파탄에서 머물며 다시 알게 된 소설들이 상상력을 자극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소설 속 인물들은 그에게 바다가 인간의 고군분투를 은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수영이라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물과 다시 조금씩 가까워진 작가가 광활한 바다에서 우연을 찾게 되었다고 하듯, 그의 작업을 찬찬히 들여다보려면 근원적인 힘이 진전하면서도 강력하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듯하다.

전시명 <Marine Layer>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부산점
전시 기간 2023년 4월 23일까지 홈페이지 www.kukjegallery.com



Exhibition in Focus

일상에서 비롯된 소재를 도구로 삼아 인간의 현실과 정체성을 곱씹어보는 회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 2선을 소개한다. '제유법' 시리즈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얻은 뒤 조각작품 작가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는 마이런 김(국제갤러리 부산점), 그리고 요즘 미술계에서 부쩍 관심을 받고 있는 테일러 화이트(지젤러리)의 개인전이다. 각각 바다와 집이라는 매개체를 들고 나와 자신만의 사유와 스타일로 담아낸 회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고군분투하며 버티내는 집과 우리네 삶

#테일러 화이트, <House Mind>展

'집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묻는다면 대다수는 그리운 안식처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속제에 자주 등장할 만한 고정 관념이다. 미국 작가 테일러 화이트(Taylor White, 1978년생의 전시 <하우스 마인드(House Mind)>에서 선보이는 작업 세계에 담긴 집은 언뜻 봐도 상상치 않다. 작품마다 집이 홀로 등장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간신히 지탱하고 있거나,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자마다 맞닥뜨린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위태롭고 쓸쓸해 보인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2019년 아메리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작가의 개인전을 맡은 지젤러리의 큐레이터가 설명하듯 오일 파스텔로 그려 내린 회들은 거칠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기색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집들의 고난이 파국을 예고하는 건 아니다. 작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집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다.' "이 그림들 중 상당수는 외부의 힘과 거센 바람, 불에 맞서 바로 서 있기 위해, 파손되지 않기 위해, 진실되기 위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다소 뼈아픈 모양새와 기운을 품고 있지만 어쨌든 집이 가는 테일러 화이트의 집은 지구촌을 심하게 명들게 한 팬데믹의 강타 속에서도 지리한 투쟁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네 삶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세계각진 갤러리 데이비드 조슈너가 지원하는 협업 플랫폼



에서 선정한 '유망 아티스트' 대열에도 오른 테일러 화이트는 원래 특유의 강렬한 미감이 담긴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22년부터 실험적 성향이 강한 방식에서 한 발짝 벗어나 유년 시절에 자주 그리던 집, 차 같은 소재를 도입해보며 구상적인 드로잉을 활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집을 소재로 한 작업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건 이번 지젤러리의 전시가 처음이라고, 글 **고성연**

전시명 <House Mind> 전시 장소 지젤러리(G Gallery)
전시 기간 2023년 4월 29일까지 홈페이지 www.ggallery.kr

1, 2 지젤러리의 부산점에서 열리고 있는 마이런 김(Byron Kim) 개인전 <Marine Layer>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Marine Layer>를 위해 한국을 찾은 마이런 김(1961) 작가. 전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안연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3 마이런 김, B.O.O. 31 (Canyonview, UCSD)(2022), Acrylic on canvas, 208 x 15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안연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Legendary of Tweed

2020년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의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Patrice Leguèreau)는 샤넬 스타일의 필수 요소인 트weed 짜임의 독창성에 영감을 받아, 트weed를 재현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며 샤넬 하이 주얼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렇게 '트weed 드 샤넬(TWEED DE CHANEL)' 컬렉션이 탄생했다. 그리고 2023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컬렉션의 시작으로 2020년 컬렉션의 상징인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를 특별히 새롭게 제작했다. 샤넬의 독창성과 주얼리 노하우를 입증할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 트weed 드 샤넬(TWEED DE CHANEL)의 대표 피스인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 2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 제작 모습. 3~5 하이 주얼리로 진행되는 트weed 드 샤넬 컬렉션의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 6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Patrice Leguèreau).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소재, 트weed는 샤넬의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 중 하나다. 1920년대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열에 중이던 가브리엘 샤넬은 남성복에 사용하던 트weed를 친취적인 여성을 위해 최초로 여성복으로 재해석해 선보였으며,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지난 1백년 동안 여실히 보여주었다. 트weed는 스코틀랜드어 '트윌(Tweel)'에서 유래한 말로 능직으로 짠 천을 뜻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를 흐르던 강인 '트weed(Tweed)'에서 비롯된 직물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심이 없고 몸에 감기는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가브리엘 샤넬이 요트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차를 몰고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옷을 만드는 데 적합한 직물이었던 것이다. 부드럽고 폭신하고 편안한 카디드 울(Carded Wool)에서 추출한 실은 빗질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불규칙적인 조직이 주는 매력을 품고 있다. 이는 가브리엘 샤넬이 찾던 완벽한 소재였고, 지금까지 샤넬의 상징이자 역사가

되어 매 시즌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2020년 들어서 샤넬은 이 상징적인 트weed로 의상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주얼리에도 적용하기를 희망했다. 트weed 소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코틀랜드산 울의 부드러움과 깊이를 주얼리 짜임에 반영하기 위해 샤넬 하이 주얼리 공방에서는 유연함과 편안함을 필수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골드와 다양한 유색 보석,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트weed의 직조처럼 앞뒤로 하나하나 작업했으며, 트weed의 꼬임을 완벽하게 수작업으로 연출해 그래픽적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총 45점의 트weed 드 샤넬(TWEED DE CHANEL) 컬렉션이 탄생했다. 2023년 샤넬 하이 주얼리는 상징적인 모티브로 수놓은 새로운 짜임을 통해 '트weed 드 샤넬' 컬렉션의 새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샤넬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에서 2020년 컬렉션의 시작이자 상징인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를 특별히 새롭게 제작해 샤넬 소장품 컬렉션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샤넬은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주얼리 노하우를 영구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샤넬의 영원한 상징이 될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는 플래티넘과 로즈 골드, 핑크 사파이어, 진주, 10.20캐럿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무수한 다이아몬드로 제작한 네크리스로 다양한 커팅의 스톤을 나열해 고급스러운 트weed 직조를 그대로 재현했다. 여기에 골드 구조물을 완전히 분절해 모든 작품에 페브릭과 같은 유연함을 선사한다. 이 네크리스는 'N'5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55.55' 네크리스와 동등하게 샤넬 하이 주얼리 소장품 컬렉션

에 추가될 예정이다. 샤넬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패트리스 레게로(Patrice Leguèreau)는 "트weed 꾸뛰르 네크리스는 2020년 직면했던 대부분의 기술적 어려움의 집합체로,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가장 야심 찬 작품이다. 예를 들어 9백80개 이상의 분절을 이어 네크리스의 유연함을 살려야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독창성과 기술력에 대한 귀중한 증거로 이 뛰어난 작품을 소장품 컬렉션에 가증하게 되어 샤넬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에디터 **성정민**



Show your Back

무심한 듯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남성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이지 컬러의 나일론 소재로 가볍고 실용적이며, 가운데 스텝업 코팅 장식으로 양옆 주머니가 스포티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디올 바이 미스터리 런치 갤러리에터 백백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면과 나일론 혼방의 프리미엄 캔버스 소재에 로고와 마그네트 잠금장치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하는 백백으로 고유의 워싱 스타일을 담아 캐주얼에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패딩 처리한 뒷면과 조절 가능한 버클로 실용성을 높였다. 2백13만원 **리모아**, 문의 02-546-3920. 편안한 패딩 스텝업과 메시 등받이로 훌륭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브랜드 내임을 새긴 메탈 버클을 풀어서 더블 핸들 여행용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카프 스킨 소재 백백 4백10만원 **로아에**, 문의 02-3479-1785. 야외 탐험을 위한 디자인에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가 함께 완성했으며, 전면을 실리온 로고로 장식해 브랜드의 감성을 전달한다. 1백34만원 **몽클레르**, 문의 0030-8321-0794. 기능성에 포커싱한 제품으로 플립 리드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특징이며, L자 지퍼가 달린 인공로 수납공간을 최대한에 가까운 수납을 가능하게 해주는 알파 브라보 컬렉션 로지스틱스 백백 84만원 **루이**, 문의 02-539-8160. 구겨진 듯한 크랙 레더 이펙트로 스트리트 캐주얼 무드를 더한 드라이프 백백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797-8770 에디터 **성창진**

이제부터 시작

Classy Move

로퍼는 워킹 플레이스나 일상, 여행지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성의 발끝을 완성해주는
훌륭한 조력자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LV 모노그램을 새긴 그레이인 송이 가죽으로 완성한 드라이빙 슈즈로 고무 패드와 스티치 끈의 탄성을 오직 LV 이니셜로 장식한 LV 드라이버 모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브랜드의 상징인 T 타일리스 메탈 포인트를 더해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한 카프 스킨 소재의 타일리스 로퍼 1백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라운드 토의 정교한 상급 니들 스티치가 빈틈없는 실루엣을 완성하는 헤럴드 테슬 카프 스웨이드 드라이버, 보트 슈즈의 레이스업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아우트라인에 카프 스킨의 부드러움을 더했으며, 라퍼 소재 아웃sole이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한다. 90만원대 **말프 로렌 피플 라베**, 문의 02-3438-6235. 장인 기법으로 만든 카프 스킨 소재에 네오난 토 디자인이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며, 메탈 시그니처 양쪽에 자리 잡은 긴채니 버클이 포인트인 간처니 오-엔트 드라이버 1백만원대 **라비모**, 문의 02-3430-7854. 브랜드 헤리티지 디자인을 담은 레더 소재 로퍼로 시아니 골드 톤 인터로킹 G 메탈 장식이 포인트를 주며, 우아한 실루엣으로 룩을 완성하는 인터로킹 G 로퍼 1백2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스웨이드 곱드 스킨 소재로 발을 부드럽게 감싸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새워진 무드를 더해주는 플링 로퍼 1백30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창진**

이제부터 시작

봄을 맞는 완벽한 자세.
2023년을 시작하는 남자의 뉴스타일, 뉴 룩.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Spring Spirit



화이트 칼라의 자수 레트로 트윈드 재킷
4백50만원, 화이트 칼라의 패치 레트로
트윈드 팬츠 2백16만원, 블랙 칼라의 가죽
소재 태슬 모카신 1백54만원 모두 구매.

옐로 칼라의 오리엔탈 플라워 자수
노머 재킷 4백22만원, 화이트 칼라의
클라운 노트 롱 2백17만원,
화이트 팬츠 가격 미정 모두 예쁘다.
블랙 칼라의 가죽 부츠 2백7만원 프리다.

자카드 디테일 더블트라스트 코트
타입로드 재킷 3백50만원, 그랜드대드
넥 미세 린 코트 티셔츠 92만원, 패쉬워크
데님 진가죽 미장, 브라운 컬러 로퍼
가격 미정 모두 **몰세앤가바나**.

오렌지 컬러의 니트 소재 터틀네
스웨터, 브라운 컬러의 로플린 소재
쇼츠, 솔이진 가죽 소재의 신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스트라이프 니트 카디건 가격미정,
브라운 컬러의 크루 넥 니트 톱
가격 미정, 브라운 컬러의 코튼 &
리넨 소재 배기 팬츠 99만원,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
코미노 버블 슈즈 88만원 모두 토즈.

라이트 블루 컬러의 코튼
스웨터 톱 1백22만원, 블루
컬러의 마님 팬츠 1백902만원,
블랙 컬러의 러버 소재 엠보싱
슬라이드 77만원 모두 토즈.



코트 체크 니트 롱 가격 미정,
블랙 칼라의 숏이자가 주 소스
4백50만원 모두 프리다.



블랙 칼라의 라이트 울 패딩 넥 셔츠
3백62만원,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칼라의 리플리 앵글부츠
2백43만원 모두 보따가 배너.

헤어 & 메이크업 **OMGMSF**
모델 **이훈석**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보따가 배너 02-3438-7882

에르메스 02-542-6622

프리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몰채환/비나 02-6853-4115

팬디 02-514-0652

에트로 02-3446-1969

구찌 02-3452-1521



평한 오렌지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
사츠 스타일의 데님 재킷 2백만원대,
마이클 비즈 플로럴 모티브 자수
장식이 돋보이는 스웨트셔츠 3백만원대,
브라운과 화이트 컬러 카우하이드 모티브
프린트의 양가죽 소재 소프트 트렁크
바게트 백 4백만원대 모두 렌디.
문의 02-544-1925



데님과 새틴의 조합으로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전하는 V 로고 데님 재킷
3백70만원, 매종의 로고 자수 패치를 다한
코튼 소재의 후드 스웨트셔츠 1백70만원 모두
발렌티노. 문의 02-3479-1397
딤 그린 컬러가 매력적인 카프 스킨 소재의
로코 크로스 보디백 2백92만원 발렌티노
가르바니. 문의 02-3479-1397



Perfect Solution

훌륭한 안티에이징 기능을 자랑하는 크림,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로션, 그리고 촉촉한 입술을 위한 립밤까지,
그루밍 베스트 아이템만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보이즈 샤넬 아이브로우 펜슬 206 딥 브라운 펜
슬의 털이 매우 정교해 누구나 손쉽게 깔끔한 눈썹 라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 펜. 무엇보다 워터프루프 기능이 뛰어나 8시간 동안 완벽한 브
로가 유지된다. 0.27g 92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
com 7월 이지 디펜더 탄력 크림 탄력, 리프팅, 주름 등 안티에이징에 특
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민트 크림. 아미 씨 추출 성분은 여성에 비해 남자
의 두꺼운 피부 조직에 깊숙이 침투해 탄력을 부여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
움을 준다. 50ml 929천원. 문의 080-822-3322 에르메스 H24 하이드레
이팅 앤 에-자이징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항산화 포몰러를 포함해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무감각 성분은 텍스처로 데
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아이 크림. 100ml 929천원. 문의 02-310-5174 디올 소
바류 에프티 세이브 밤 산안정 추출물과 시아버터 성분을 함유한 포몰러가 면
도 후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특히 텍스처가 부드러운 번들거림이나 끈
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100ml 929천원. 문의
080-342-9600 스위스퍼센션 맨 나이트 리카버리 마스크 탁월한 수분감과
진정 효과가 지는 동안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나이트 마스크 바오버브
나무 씨 오일과 엘라그리콜 스테아레이트 추출물이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피부
를 보호하며, 생기 있게 가루준다. 50ml 27만2천원. 문의 1644-4490 비
오렐 UV 디펜스 선스틱 SPF 50+/PA+++ 스킨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속
속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며, 울트라 글라이딩 UV 필터로 자외선은
물론 미세 먼지까지 강력하게 차단한다. 20g 929천원. 문의 080-835-
0076 톰포드 뷰티 얼라이 네쉬 립 블러시 톰포드의 아이크닉 립밤이
사이드 노트의 실버 컬러 리미티드 패키지를 입고 더욱 특별해졌다.
미세한 은빛 글이 촉촉히 박힌 텍스처가 자연스러운 립을 연출한
다. 3g 729천원. 문의 02-6971-3211 에디터 윤자경



feel the spring

봄을 알리는 경쾌한 컬러감, 유틸리티를 더하는
프린팅과 디테일, 그리고 소재의 폭넓은
변주까지. 스프링 맨 아우터 & 백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블루 레진 CD 버클이 포인트인 블루중,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컬러 코튼
자수 소재 셔츠, 편안한 캐주얼 무드를
선사하는 그레이 CD 다이아몬드 캔버스
디올 크로스보디백 모두 가격미정 디올 렌.
문의 02-3280-0104



유니크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100% 면 소재의
웨이비 데님 재킷,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울 소재의 세울 인피르시아 울오버, 견고한 가죽
소재에 귀여운 도트 프린팅이 눈길을 사로잡는
식플라 by 루이비통 x 쿠사미야이모이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윤자경



이문자경

이문자경

CHANEL